



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동향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 보험회사들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2013년 이후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.

- 2012년 말까지 해외시장에서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국 보험회사는 중국태평보험(China Taiping)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됨.
 - 중국태평보험은 중국 정부가 허가한 해외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유일한 보험회사로서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, 뉴질랜드, 인도네시아, 영국, 일본에 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음.
- 2013년 이후 안방보험그룹(Anbang Insurance), 복성그룹(Fosun)은 현지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유럽, 미국, 한국 등 선진시장에서 보험사업을 시작함.
 - 안방보험그룹은 벨기에 FIDEA, 네덜란드 VIVAT, 한국 동양생명을 인수했으며 복성그룹은 포르투갈 Caixa Seguros e Saúde, 미국 MIG 및 Ironshore를 인수함.
- 2015년 6월 중국인수보험(China Life)은 싱가포르에서 독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고성장하는 동남아 보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임.

〈표 1〉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

회사명칭	진출 시기	업종	진출방식	진출대상국
안방보험그룹 ¹⁾	2015. 5	손해보험, 건강보험	FIDEA의 지분 100% 인수	벨기에
	2015. 2	생명보험, 자산관리	VIVAT의 지분 100% 인수	네덜란드
	2015. 6	생명보험	동양생명의 지분 63% 인수	한국
복성그룹 ²⁾	2014. 12	생명보험, 손해보험	Caixa Seguros e Saúde의 지분 80% 인수	포르투갈
	2015. 7	손해보험	MIG의 지분 100% 인수	미국
	2015. 2	손해보험	Ironshore ³⁾ 의 지분 20% 인수	
	추진 중	생명보험, 손해보험	Phoenix의 지분 52% 인수	이스라엘
중국인수보험	2015. 6	생명보험	독자 현지법인 설립	싱가포르

주: 1) 안방보험그룹은 생명보험회사(안방인수보험), 손해보험회사(안방재산보험), 건강보험회사(화해건강보험) 등의 계열사를 보유함.

2) 복성그룹은 생명보험회사(복성푸르덴셜인수보험), 손해보험회사(영안재산보험), 재보험회사(피크재보험회사) 등의 계열사를 보유함.

3) 복성그룹은 2015년 2월 Ironshore의 지분 20%를 인수했으며 현재 나머지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.

자료: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.

■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투자수익률 제고는 중국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.

- 2012년 7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CIRC)는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지역을 기존의 홍콩에서 25개의 선진시장과 20개의 신흥시장까지 확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됨.
-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(수입보험료 기준)이 매우 낮으며 중국인수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했음.
 - 2013년 안방보험그룹 계열사인 안방인수보험(0.1%), 안방재산보험(1.0%), 복성그룹 계열사인 복성푸르덴셜인수보험(0.0%), 영안재산보험(1.2%)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2% 미만임.
 - 중국인수보험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46.9%에서 20.8%p 감소한 2014년 26.1%로 하락함.
-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은 해외시장에서 현지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얻은 보험자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음.
 - 2015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안방보험그룹이 독일 부동산기업인 Deutsche Pfandbriefbank AG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복성그룹 CEO 량신군(梁信军)은 향후 보험자금을 이용해 해외시장 금융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밝힘.
 - 앞서 2013년 10월 복성그룹은 뉴욕 One Chase manhattan Plaza, 2014년 10월 안방보험그룹은 뉴욕 Waldorf Astoria Hotel을 인수한 바 있음.
- 한편,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해외 보험회사(특히 유럽 보험회사)가 저평가돼 있어서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음.

■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해외진출로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 등의 문제로 사업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함.

- 중국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은 선진시장에서 보험회사 인수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힘입어 중국시장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.
- 다만 2013년까지 중국 보험업계는 외국 보험회사를 중국시장에서 받아들이었지만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을 포함한 중국 보험회사는 해외시장에서 현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한 경험이 없음.
- 특히 중국 안방보험그룹 및 복성그룹이 해외시장에서 인수한 현지 보험회사들은 대다수가 경영 부실 이유로 매각됐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 부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대한 노력과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됨.
 - 중국 보험회사는 유럽 및 미국시장에서 경험이 없는 노사문제를 비롯한 경영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음.

(WSJ, Sina 등)